

우리는 예수사람 이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기도회	김태영 목사
찬양	Shem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찬양
대표 기도	김상갑 형제
성경 봉독	마 6:31-34 다같이
말씀 선포	하나님의 나라 김태영 목사
기도회	다같이
봉헌송	다같이
축도	김태영 목사
광고	문정환 형제
축하 순서	신민경 자매

청년부를 섬기는 사람들

지도 김태영 목사	부장 이혁주 장로
회장 이수연 자매	부회장 문정환 형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대표 기도 및 봉사순

08월 26일	이승환 형제	이수연 자매순
09월 02일	김상갑 형제	최정현 형제순
09월 09일	박원철 형제	박은미 자매순
09월 16일	류명림 자매	박민선 자매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모임시간 안내

-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청년부실
- ▷ 청년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시/청년부 교사실
- ▷ 찬양팀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청년부실
- ▷ 문서팀 모임 토요일 오후 5시/청년부실
- ▷ F.C 예림 모임 토요일 오전 (시간은 때에 따라)
- ▷ G.S 선교팀 모임 수요일 오후 8시 30분

1. 오늘 예배 후에 캄보디아,
크림타타르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2.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 개강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청년부실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 순장님들께서는 보고서 필히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세요.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

팀장 안내

팀장: 이혁주, 전영희, 최나영, 송재우, 윤민용, 신현우, 박현덕

문서 선교팀 커뮤니티

www.coram.kr

이제 쉽고 편하게! 코람닷컴이 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애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분별한 것인지 확신을 점검해야 한다.

오만이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오만' (hubris)이란 "비극적 몰락을 초래하는 자존심이나 자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잘 처리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면 사실상 이를 수 있다고 부추기는 세상 문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 철학을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실제 역할에 대해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다.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은 '겸손'을 "우리 자신에 대한 온당한 평가"로 정의했다. 하나님의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능력으로 임무를 성취하

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라" (빌 4:13)라고 썼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든 것이지, 바울이 어쩌다 자기 마음에 떠올린 모든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모든 권세는 우리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권세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시각을 놓치면 그리스도인 특유의 오만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기 전에 오만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p.218 우리에게 오만이란...

* 나의 주인은?

- essay.30 -

연필은...



오직 주님의 손에 들리어
이 시대의 가장 멋지고 훌륭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연필과 같은 사물이 아닙니다.
연필에게는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는 달라질 것이며 그 결과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나를 쓰는 주인은 누구인가요?

믿음생활 에세이: <http://blog.naver.com/noriart>

그리스도인 특유의 오만은 정작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빌 4:13에서 말한 바울사도의 이야기가 마치
내게 全權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들렸다면

"이는 이미 내가 오만의 길에
접어들고 있음! 아닐까요?"

"무엇이든 뜻을 세우면 할수 있다"는
세상철학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는
기독교 철학의 차이는

"할수 있다"에 있는 것!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에 있음을
기억할 일입니다.